

#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다윗

## 사무엘상 27장

### ◆ CHECK POINTS

- ① 다윗은 블레셋을 향하여 왜, 그리고 어떻게 다시 가게 되었습니까?
- ② 다윗은 블레셋 땅의 가드 지역으로 피신한 후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 ③ 다윗은 블레셋 땅의 아기스 왕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사무엘상의 후반부 19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의 시련과 사울 왕가 몰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점차 도피 생활의 중지부를 찍으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난 26장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다윗이 오늘 27장에서는 불신앙의 결정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극히 인간적이었던 그의 결정과 행동으로 인해 이후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부정적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 ◎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않은 다윗

-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을 향해 길을 떠남

삼상 27:5

잠 20:17

삼하 2:1-2

오늘 다윗은 사울 손에 잡혀 죽을 것을 염려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신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의 결정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임의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최선의 결정” 적어도 “선한 결정”이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결정”이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으로 기도 중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한 악한 일은 결국 보응과 고통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가족과 그의 식솔들, 약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 지역의 도시 중 가드 땅으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왕 아기스에게 지방 성읍 중 하나를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왕은 다윗에게 시글락 지역을 하사합니다.

삼상 27:5 다윗이 아기스에게 간청하였다. "임금님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지방 성읍들 가운데서 하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어떻게 감히 임금님과 함께, 임금님이 계시는 도성에 살 수가 있었습니까? (새번역)"

잠 20:17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삼하 2:1-2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도망친 블레셋 땅 가드 지역은 그가 사무엘상 21장에서 한번 도망쳤던 곳입니다. 당시에 그를 알아본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했던 수치의 자리였지만 압박한 환란을 넘기려는 목적으로 식솔을 데리고 최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우를 범하였고 나아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의 지역 왕에게 비굴하게 간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으로 시작한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여도 결국엔 재앙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 다윗의 도피 생활 (사무엘상 19장~27장)

1기	사무엘상 19-22장	약3년	기브아 집에서 헤렛 수풀까지
2기	사무엘상 23-26장	약3년	그일라에서 심 황무지까지
3기	사무엘상 27-31장	약4년	블레셋 가드에서 시글락까지

-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에게 거짓을 말하게됨

삼상 27:10-12

삼상 22:5,6

잠언 25:24



블레셋 가드 아기스 왕 앞에 다윗

### ◎ 사람의 마음대로 행하는 다윗

블레셋의 5대 성읍 중 하나님 가드는 가나안 정복 시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또한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곳에 숨으면 도저히 사울은 자기를 찾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것이지만 다윗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명하신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1년 4개월을 살며 근방 그술과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곳에 사람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살육하며 양과 소, 나귀와 낙타, 의복 등을 빼앗아 가지고 왔습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물어볼 때에는 적국 이스라엘 지역을 공격하여 그곳 백성들을 도륙하였다고 거짓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삼상 27:10-12**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일 년 사 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삼상 22:5,6**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 다 함을 들으니라 그 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잠언 25:24**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다윗은 블레셋에 숨어 지내는 동안 적국의 백성들을 죽여서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는 처음부터 자기 의지와 유익에 따른 것이기에 결국 잔혹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리 선한 일로 포장하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처사였습니다.

### ◎ 스스로 해악(害惡)을 받게 되는 다윗

-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한 것은 반드시 그것의 대가를 받게됨

삼상 27:12  
대상 22:8  
시 84:1-6, 10

오늘 다윗이 피신한 블레셋 가드는 육적으로는 편했을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사울이 주는 위험보다 더욱 큰 위기의 자리였습니다. 이전부터 블레셋은 우상 종교와 죄악 문화에 물든 세계로 그의 신앙 성장에 암초가 되는 자리였음에도 오늘 다윗은 급히 임박한 환란을 피하고자 스스로 악한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실행했던 다윗은 1) 악한 자에게 비굴하게 아침해야 했고, 2) 무고한 이들을 잔혹하게 살육해야했으며, 3) 자신에게 계속하여 거짓되야만 했습니다.

**삼상 27:12**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대상 22:8**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시 84:1-6, 10**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와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 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나의 이기적 결정과 행위는 당대와 후대에도 막대한 손해와 저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나타난 다윗의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행동하는 것은 당장 불이익을 겪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그분의 섭리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 ▣ 참고자료: “블레셋”(Philistines) 족속과 영토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상세히 밝혀져 있지 않다.

하지만 이들이 예게 바다 지역에서 그레데와 구브로를 거쳐 중동으로 이주해 왔다는 것은 확실하다. (렘47:4; 암9:7)

블레셋인들은 주전 2000년대 헷 사람들의 나라를 무너뜨린 바다 민족들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옷과 무기와 말과 체제가 가나안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랐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들의 우세한 힘에 시달려 왔다(삿13-16장; 삼상4-17장; 31장).

이들은 일종의 도시 동맹을 맺어서 나중에 이른바 '펜타폴리스'(='다섯 성읍')라 불렀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에그론이 그 다섯 성읍이었다.

'블레셋 사람들'(히브리어, '펠리쉬팀')이란 말을 따라 전 지역에 '팔레스티나'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출처, 대한성서공회 용어사전)

